

명창들 한자리에... 구례서 판소리 축제 열린다

구례동편소리축제 18~20일 서시천 체육공원·구례5일시장 일원 명창 공연·줄타기·장작무 등 다채...관람객 100명에 경품 추첨도

'2025 구례동편소리축제'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구례 서시천 체육공원과 구례5일시장 일원에서 열린다. 구례군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위대한 유산, K-소리'라는 주제로, 동편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 첫날인 1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구례5일시장에서는 풍물놀이와 마술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다음날 오후 7시에는 '구례의 소리 I' 무대를 통해 지역 명창들이 공연을 선보이며, 이어지는 개막제에서는 줄타기 신동 남창동의 줄타기 공연으로

오프닝을 장식하고, 명창들의 진한 판소리와 함께 주제공연 '위대한 유산, K-소리'가 무대에 오른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단의 창작무 '학춤', 김상연의 대금산조 공연 등 전통과 창작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가 마련된다. 피날레에서는 성악가 신문희가 부르는 '아름다운 나라'가 전 출연자들과의 대합창으로 이어져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100여 개의 경품 추첨이 준비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동편제판소리전수관에서 해설과 함께하는 판소리 무대가 마련돼 관람객들

이 동편제의 역사와 매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후에는 신예 소리꾼과 구례꿈나무동편소리 합창단이 참여하는 '차세대 K-소리' 무대가 이어지며, '구례의 소리 II' 젊은국악인&명인명창전에서 명창들의 판소리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울림설장구 등 다양한 전통 공연과 함께, 국악인 김나니와 미스트롯 출신 정미애의 특별 초청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최성현 구례동편소리축제 추진위원장은 "구례는 동편제의 뿌리이자 우리 전통 소리의 본향"이라며,

"이번 축제가 동편제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새롭게 꽃피우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025 구례동편소리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구례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소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하나 되어 전통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구례의 문화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달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함께 관측해요”

고흥군, 8일 특별 관측회 우주천문과학관에서 진행

고흥군이 오는 8일 새벽, 특별한 천문 현상인 개기월식을 맞아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특별 관측회를 운영한다.

개기월식은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위치하면서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으로, 같은 지역에서는 통상 2~3년에 한 번 정도 관측 기회가 생긴다.

거대한 광원인 태양 때문에 지구의 그림자는 진한 부분과 옅은 부분으로 나뉜다. 달이 옅은 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을 '반영월식', 진한 본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을 '부분월식'과 '개기월식'이라고 한다. 반영월식은 달이 살짝 어두워지는 정도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천문과학관에서는 부분월식과 개기월식 과정을 관측한다.

이번 개기월식은 7일 저녁 6시 40분경 달이 뜬 뒤, 8일 새벽 1시 30분경 달 한쪽이 어두워지는 부분월식이 시작된다. 이어 2시 30분에는 달 전체가 어두워지는 개기월식이 진행되며, 3시 50분경부터 달이 서서히 밝아지고 5시경에는 다시 원래의 밝은 달이 보이게 된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국내 최대 규모인 800mm 반사 망원경과 동영상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의 신비를 생생하게 관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이 오는 8일 새벽 개기월식을 맞아 특별 관측회를 운영한다. 2022년 개기월식 모습.

간이다. 2층 전시실에는 양부일구 등 고천문기와 태양계체중계 및 용오름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돼 있으며, 1943년 고흥 두원에 낙하한 운석 모형도 전시돼 있다. 3층 전당대에서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천문과학관 관계자는 "9월 새벽 관측은 장시간 야외에서 진행되므로 여분의 긴 옷을 준비하고,

다음날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해 달라"며 "날씨가 흐리면 관측이 불가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문과학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관광정책실(061-830-66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곡성 '매일 만나는 소아과' 주민 만족도 100%

군,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친절·가까운 거리 등 호평

곡성군이 운영 중인 '매일 만나는 소아과'에 대해 주민 모두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군이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매일 만나는 소아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175명 중 '매우 만족' 79% (139명), '만족' 21% (36명)로 응답자 10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폼을 통해 444명에게 안내됐으며, 응답률은 40%였다.

이 조사에서 만족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52%가 '친절한 진료'라고 답했으며, '가까운 거리'가 28%로 두번째로 많았다. 지난 5월 진료 시작한 이후 4개월 동안 이용객(1251명)의 75%가 재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방문 목적은 일반진료(58%), 예방접종(25%)과 영유아 검진(17%)이 뒤를 이었다. 인지 경로는 군 홈페이지 및 SNS(32%)와 어린이집·학교 안내장(23%), 포스터·현수막(22%) 등이 주를 이뤘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대부분은 군 내 소아과 부재로 인해 과거에는 광주(59%)나 전북 남원(20%)까지 원정 진료를 다녀야 했다고 답했다. 소아과 개설에 대해 응답자의 73%는 고흥사랑



곡성군민을 대상으로 한 '매일 만나는 소아과'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100%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아과 진료 모습.

기부제를 통해 알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98%가 주변 지인에게 기부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고흥사랑기부제가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응답자들은 의료기기 확충 등 서비스 다양화와 품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다수 제시했으며, 예약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곡성군은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곡성군민의 소아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앞으로도 예약 시스템 구축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들께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11월 중 제작될 홍보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일 만나는 소아과'의 성과와 고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한농연 '영호남 자매시군' 상생 다짐

우정 한마당 성료...농특산물 상호 교환·교류 확대 등

순천시가지 지난 1일(사)한국농어업경영인 순천시연합회 주관으로 순천·진주·고흥 3개 시군 농업인이 함께한 '2025 영호남 자매시군 우정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35회 한국농어업경영인(이하 한농연) 대회와 제1회 여성농업인 대회가 함께 열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온 두 단체

의 화합과 상생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 또 진주시 연합회와 고흥연합회가 함께 참여해 우의를 나누고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영호남 자매시군 우정 한마당'은 1999년부터 시·군별 순회제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500여 명의 농업인이 참석했으며,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에 대한 표창

과 감사패 수여가 진행됐다. 또한 3개 시군은 농특산물을 상호 교환하며 교류 확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진주시와 고흥군 연합회에서는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고흥사랑기부금을 순천시에 전달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순천시·진주시·고흥군은 3년 연속으로 고흥사랑기부금 릴레이 기탁을 이어오며 고흥 발전을 응원하고 있다. 한편,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오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서 영호남 '문화 교류의 장'

9~11일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합창·국악 공연

광양시가 오는 9일부터 3일간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제8회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2018년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은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는 민간 예술단체가 주축이 된 문화교류 축제로, 영호남의 화합과 융합을 이끌어 온 대표 행사다. 매년 전라권과 경상권이 교차 개최되며 지역 간 문화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광양예총이 주관한다.

행사 첫날인 9일에는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기념식이 열리며, 남중권협의회 소속 9개 시·군 단체장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한다. 이어 남중권의 비전을 제시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예술제 개막을 알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의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10일과 11일에는 각 시·군 예술단체의 다채로운 문화교류 공연과 합창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한국화·서양화·서예·사진 등 180여 점의 작품 전시도 진행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 행사를 계기로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남해안남중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영호남 남해안 중심 지역 9개 시·군(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이 함께하는 광역행정협의체로, 행정구역과 지역 경계를 넘어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남해안권 발전과 동서 화합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혈관 건강 지켜야 100세 시대 열립니다”

고흥군 '레드서클' 캠페인...한달간 마을회관 등 혈압·혈당 측정



고흥군이 이달 한 달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레드서클'은 혈액과 건강을 상징하는 '레드'와 순환과 긍정을 상징하는 '서클'을 결합한 말로, '건강한 혈관'을 뜻한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캠페인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자신의 혈압·혈당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심뇌혈관질

환을 예방하며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했다. 대상자들에게는 ▲혈압·혈당 측정 ▲자기혈관 숫자알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 ▲심뇌혈관질환 응급증상 및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고,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조기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고흥군 보건소는 9월 한 달간 관내 43개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등을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군, 8일 이호선 교수 초청 자치포럼

보성군이 오는 8일 오후 3시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제375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톡 쏘는 사이드 강연'으로 잘 알려진 상담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초청돼 군민과 만난다. "나답게 살고, 내일을 바꾸는 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상담심리 전문가인 이 교수는

JTBC '이혼속리맨', EBS '부모클래스' 등 다양한 방송에서 현실적인 조언과 공감으로 대중과 소통해 왔다. 또 '오십의 기술', '이호선의 나이들 수록' 등 저서를 통해 인간관계와 소통의 기술, 나이 들며 맞이하는 삶의 지혜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번 포럼은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총무과(061-850-5121)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여수시, 추석 앞 도로변·조림지 환경 정비

여수시가 추석을 앞두고 이달부터 내달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과 조림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수목 생장에 지장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덩굴류를 제거하고 조림지와 도로변의 풀베기·제초 작업을 집중 추진해 명절 대비 도시 경관을

한층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에는 총 3억 2600만원의 투입해 ▲도로변 덩굴 제거 120ha ▲조림지 풀베기 51.76ha ▲9개 권역 도로변 풀베기 및 제초 작업 등을 진행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